

‘文明語言’의 개념에 대한 小考*

鄭潤哲**

目 录

1. 들어가기
2. ‘文明’의 개념
3. ‘文明’과 ‘언어 문명(言語文明)’
4. ‘文明語言’의 개념
5. 나오기

1. 들어가기

[그림1]은 현재 중국의 각급 학교나 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어 중 하나이다. 이 표어에서 생소하면서 동시에 눈을 끄는 단어가 바로 ‘文明’이다. ‘文明’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물질적인 측면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 또는 그렇게 하여 인간 생활이 발전된 상태’인데, 이 단어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 이해 또한 여기서 많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그림1】

* 이 논문 2013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13).

** 釜山外國語大學校 中國語學部 副教授

러한 개념적 이해가 ‘말’을 뜻하는 ‘語’와 ‘사람’을 뜻하는 ‘人’과 결합하면 그 함의의 파악이 녹록치 않다. 특히 ‘文明語’라는 조합은 그 실체가 매우 궁극해진다. 하지만 ‘文明語’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적 접근도 전무한 실정이다. 필자가 동료 교수 몇 명에게 ‘文明語’의 개념을 물었을 때, 대부분 ‘교양어’라는 의미를 떠올렸다. ‘교양’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약간의 계층성을 차치하더라도 ‘文明語’를 ‘교양어’로 이해하기에는 ‘文明語’의 외연이 넓다. 현재 ‘文明’이 ‘말’을 뜻하는 다른 단어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文明語’ 외에도 ‘文明語言’, ‘文明用語’, ‘文明禮貌用語’, ‘文明提示語’, ‘文明警告語’, ‘文明廣告語’, ‘文明宣傳語’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즉 ‘文明語’ 혹은 ‘文明語言’를 상위 범주로 하여 다양한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文明’이 하나의 지향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언어 사용의 규범성을 강조하던 이전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문명’이라는 키워드는 언어 사용 측면 뿐 아니라 현재 중국사회의 전반에 걸친 발전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데, ‘文明城市(문명 도시)’, ‘文明單位(문명 기관)’ 등에서 ‘文明駕駛(문명 운전)’, ‘文明用餐(문명 식사)’ 등 중국의 사회 구성 조직 및 중국인의 사회적 행위, 생활규범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中央宣傳部와 中央文明辦 등의 조직을 통해 다양한 중국사회의 문명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의 공식 홈페이지 이름 또한 ‘中國文明網’으로 국가 지도자들의 ‘문명 지침’과 각 지역 각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명 고취 활동을 홍보하기에 바쁘다. 또 지식인들은 앞 다투어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새로 가져야 할 과제로 ‘文明’을 제시하고 ‘文明型 國家’의 굴기를 외치고 있다.¹⁾ 언어 사용의 지향점으로서의 ‘文明語’는 바로 이러한 중국 사회의 문명 지향이라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文明語’에 대한 이해를 명확

1) 김홍수(2011)에서는 張維爲의 『中國振撼一个“文明型國家”的崛起』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송인재(2012)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인 許紀霖과 甘陽의 문명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자세한 논의는 두 논문을 참조 바람.

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중국 사회의 발전적 지향점이 되고 있는 ‘文明’의 개념을 파악할 것이며 둘째, 이러한 개념 정립을 통해 ‘文明語’의 상위 개념으로 인식되는 ‘언어문명’의 성격을 규명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언어적 실체로서의 ‘文明語’가 지니는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다만 관련 학술 논문에서는 모두 ‘文明語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語言’이 ‘語’ 보다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文明語言’을 대표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문명(文明)’의 개념

중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文明’ 개념이 도입된 것은 대략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梁啓超이다. 당시 개화론자였던 梁啓超에게 중국이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화주의’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서구의 ‘civilization’ 즉 ‘文明’을 수용하는 것이었다.²⁾ 그는 사회의 발전 단계를 ‘야만’, ‘반개(半開)’, ‘文明’으로 구분하는 서양의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서양은 더 이상 ‘중화주의’의 각도에서 보는 ‘야만’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점이었다.³⁾ 이러한 문명관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발전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은 대체로 이 시기 지식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新 중국 성립과 10년간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文明’은 사회적 담론에서 다소 멀어져 갔다.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文明’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등소평은 ‘兩手抓, 兩手都要硬’이라는 말을 통해 사회주의 ‘物質文明’과 ‘精神文明’

2) 서광덕, 「20세기 초 중국의 ‘문명/화’담론과 ‘언어’론에 대한 검토」,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7집, 2010, 58쪽 참조.

3) 송인재, 「‘문명’의 발견과 해석, 그리고 중국의 비전」, 『유교사상문화연구』 제48집, 2012, 175쪽 참조.

의 병행적 발전을 제안하였다. 즉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고도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으로, 물질문명은 정신문명의 물질적 조건과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며 정신문명은 물질문명의 발전에 정신적 동력이 됨과 동시에 사상적 기초가 됨을 역설하였다.⁴⁾ 이때부터 정신문명의 발전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발전적 지향점이 되었다. 江澤民은 ‘十五大報告(1997)’에서 “심도 있고 지속적인 대중적 정신문명 창조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공익과 직업 도덕 및 가정 미덕을 적극적으로 창도해 나가자”라고 제창하였는데,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 ‘講文明, 樹新風’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⁵⁾ 그러면 근대 시기 이후 현재까지 ‘物質文明’, ‘精神文明’, ‘政治文明’, ‘生態文明’⁶⁾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중국 사회의 발전적 지향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文明’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위해 먼저 언어적 정의를 살펴보자.

『現代漢語詞典』(第六版)에서는 ‘文明’의 의미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① ㊦ 文化①: 物質~.
- ② ㊦ 社會發展到較高階段和具有較高文化的: ~人|~國家.
(사회가 비교적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비교적 높은 문화를 지니다.)
- ③ ㊦ 旧時指有西方現代色彩的(風俗、習慣、事物): ~結婚|~棍儿(手杖).
(과거에는 서양의 현대적 색채를 지니는 것을 가리킴(풍속·습관·사물))

4) 衛劉華, 「從鄧小平、江澤民到胡錦濤: 社會主義文明觀的新發現」, 『攀登』 第25卷 145期, 2006, 94쪽 참조.

5) 任仲平, 「論講禮貌」, 『人民日報』(1998.1.25), 1998

6) 중국 제2세대 지도자인 鄧小平은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의 병행적 발전을 제기했으며, 제3세대 지도자인 江澤民은 ‘政治文明’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政治文明’의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 제4세대 지도자인 胡錦濤는 ‘生態文明’의 건설을 소강(小康)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衛劉華, 「從鄧小平、江澤民到胡錦濤: 社會主義文明觀的新發現」, 『攀登』 第25卷 145期, 2006, 94-95쪽 참조.

劉估鵬, 「我國社會主義文明觀的歷史演進」, 『理論探索』 第2期, 2010, 31쪽 참조.

위의 세 가지 의미항목 중 ❶에서는 '文化❶'로 설명하고 있는데, '文化❶'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人類在社會歷史發展過程中所創造的物質財富和精神財富的總和，特指精神財富，如文學、藝術、教育、科學等。
(인류가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 중에 창조해낸 물질적, 정신적 재부의 총화이며, 특히 문학·예술·교육·과학 등의 정신적 재부를 가리킨다.)

의미항목 ❶은 인류의 제반 정신적 산물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文化'의 의미와 중첩된다. 의미항목 ❷는 '단계적 높음'이라는 측면에서 '文化'와 일정한 구별점이 생겨 ❶에 비해서는 개념이 더 구체화되어 있다. 의미항목 ❸은 시대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사용적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현재 중국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文明'의 의미는 ❶과 ❷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文明'이 '文化'와 의미적 교집합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즉 인류의 제반 정신적 산물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의미항목 ❶이 '文化'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文明'과 '文化'의 개념적 혼동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文明'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文化'와 교집합을 형성함과 동시에 차집합도 형성한다. 다음은 현재 중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文明'의 용례이다.

- 小小不文明傷了城市“臉”。
- 中网“大腕”球員們吃飯很文明。
- 開車要文明一點，再文明一點！
- 餐桌上浪費少了文明多了。

위의 예는 모두 신문기사의 표제인데, 여기서 '文明'이라는 단어는 '인류의 제반 정신적 산물'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위의 예서 '文明'은 의미항목 ❷의 의미에 가깝다. 또 위의 예에서 '文明'은 언어적으로 볼 때 모두 문장의 술어로 쓰여 부사('不', '很', '再')의 수식을 받거나 정도보어('多'), 수량보어

(‘一點’)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文明’이 언어적으로 양화(量化)되어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도의 강약을 지니는 대상이자 양적 변화를 지니는 대상인 것이다. 반면 ‘文化’는 정도부사나 정도보어, 수량보어를 취하기 어렵다. 이는 언어적으로 ‘文明’이 ‘文化’에는 없는 새로운 의미항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언어적으로 볼 때, ‘文明’과 ‘文化’는 ‘인류가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 중에 창조해낸 물질적, 정신적 재부의 총화이며, 특히 문학·예술·교육·과학 등의 정신적 재부’라는 의미는 공유하고 있지만, 양화된 의미 즉 ‘사회가 비교적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비교적 높은 문화를 지니는 것’이라는 의미는 공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자의 개념적 차이는 언어적으로 간단히 구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양자를 차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각도에서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백과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문명(文明)은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말한다.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키비스(civis:시민)나 키빌리타스(civilitas:도시)에서 유래하였으며,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문명이란 낱말은 18세기쯤에 사용되기 시작한 어휘로서 유럽의 국가 형성과 관련된다. 특히 프랑스에서 식민지 개척 과정 중 유럽과 비유럽의 차별성 혹은 ‘문명’과 ‘야만’을 차별성을 두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전적으로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사회적 발전이라 정의되지만, 실제에 있어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 이는 문명을 문화와 대치(對置)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파악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독일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인류의 정신적이고 가치적인 소산을 문화라고 하는데 대하여 물질적 기술적 소산을 문명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현재 통속적인 용법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후자의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문화 인류학의 보급에 따라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 중에서 도시적인 요소, 고도의 기술, 작업의 분화, 사회의 계층분화를 갖는 복합문화(문화의 복합체)를 큰 단위로서 파악한 총체를 문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커다란 문화라는 범위 속에 물질적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18세기 몽테스키외나 루소 등의 백과사전서과

는 문명을 야만(barbarism)과 대치시키지 않고 봉건제·군주제와 대치시켜 문명이란 말 속에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진보라는 뜻과 계몽의 의미를 포함시켰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세계문명을 포괄적으로 다룬 드문 역사가인 토인비는 문명의 단위를 국가보다는 크고 세계보다는 작은 중간적인 범위에서 구하였다.

(위키피디아 : '문명'의 정의)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론 기반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에드워드 버네트 타이러는 1871년 그의 사회인류학 저서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란 제 민족의 양식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 양식을 총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는 주로 자연과 대립해서 쓰인다고 하였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객관적·필연적으로 생기나, 이러한 자연을 소재로 하여 목적 의식을 지닌 인간의 활동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문화’라 한다. 이러한 과정의 소산(所産)을 특히 ‘문화재’(文化財)라 부른다. 즉 종교·예술·과학·문학 등의 구체적 형상을 ‘문화재’라고 한다. 또한 ‘문화’와 ‘문명’을 대비시켜 쓰는 경우도 있다. 문화는 비교적 내부적인 것, 문명은 비교적 외부적인 것을 가리키나, 그 구별은 엄밀하지 않다.

유네스코는 2002년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위키피디아 : '문화'의 정의)

서양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러 형성된 유럽의 문화를 일반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문화를 문명과 동일시하는 동시에 서구의 문명을 문화의 전범으로 파악하는 서구우월주의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반성에서 모든 인류의 문화를 내재적 시각으로 연구하려는 문화상대주의가 시작되었다.

(위키피디아 : '문화와 문명')

이상의 백과사전적 정의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언어사전적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文明’과 ‘文化’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으로, ‘文明’을 ‘물질적인 소산’을 보고 ‘文化’를 ‘정신적이고 가치적인 소산’으로 구분하기도 하였고 ‘文化’를 큰 개념으로 보고 그 안에서 물질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文明’을 보기도 하였다. 또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앞의 용례에서 보았듯이 현재 중국어에서 ‘文明’의 의미는 ‘文化’에는 없는 정도의 강약이나 양적 변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때의 의미를 ‘文化’와 ‘文明’을 구별하는 견해에 근거해 ‘물질적 소산’ 혹은 ‘문화 내에 속하는 물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용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견해는 현재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의미항목 ②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文明’을 ‘文化’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한다면 양자 사이에는 ‘물질적 소산’ 혹은 ‘문화 내에 속하는 물질적인 요소’ 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이문(1999:75)은 ‘문명’을 한 사회의 경제나 기술과 같은 물리적 측면을 지칭하고 ‘문화’를 이념, 예술, 도덕, 학문과 같은 정신적 양상을 가리키는 독일의 학문적 전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자는 물질적 구성 요소와 정신적 구성 요소를 따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서술하는 관점의 차이로 보았다. 즉 ‘문명’이 한 사회를 시간적 축에서 통시적으로 본 발달과정을 뜻하는데 반해서, ‘문화’는 같은 사회를 공간적 축에서 공시적으로 본 일반적 태도의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문명’은 동태적 발달 과정이며 ‘문화’는 정태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전홍석(2011)은 ‘문명’을 두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는데, 하나는 문명 복수적(plural) 측면에서 인간 삶의 양식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문화를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문명의 단수적(singular) 측면에서 야만과 상반되는 ‘진보’, ‘발전’, ‘도덕’의 의미인데 이는 자연과 대치되는 인위적 속성으로서의 문화와 대별되는 문명 개념이다. 이 중 문명 복수적 측면의 의미는 문명이 문화를 포괄한다는 점만 다를 뿐 박이문(1999)이 하나의 정태적 구조로 본 ‘문화’와 유사하다. 문명의 단수적 측면의 의미는 ‘진보’,

‘발전’, ‘도덕’이라는 가치기준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가치 기준이 동태적 발달 과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박이문(1999)의 ‘문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宋斌(2009:315)은 ‘文化’와 ‘文明’의 차이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文化’는 자연에 상대적이지만 ‘文明’은 야만에 상대적이다. 둘째, ‘文化’는 성과로 표현되지 않지만 ‘文明’은 인류의 발전 정도로서 반드시 모종의 성과로 표현된다. 셋째, ‘文化’는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지만 ‘文明’은 포핌, 우열 등의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넷째, ‘文化’는 다원적이어서 민족, 지역, 시대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文明’은 일원적이어서 인류의 기본적인 요구와 발전의 만족을 본질적 척도로 삼는다.

宋斌(2009:315)의 ‘文化’와 ‘文明’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구별은 박이문(1999)과 전홍석(2011)에 비해 보다 종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文明’은 일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일원성은 동태성을 지닌다. 여기서 일원적 동태성은 일정한 기준점을 지닌 전후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전후는 크게 ‘(야만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진보’, ‘성과’, ‘긍정적 가치’라는 기준을 통해 구분된다. 반면 ‘文化’는 다원적 정태성을 지니며, ‘자연’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성과’나 ‘긍정적 가치’라는 기준점을 갖지 않는다.⁷⁾ 박이문(1999), 전홍석(2011), 宋斌(2009)의 논의를 종합하면 ‘文化’와 ‘文明’의 개념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文化	文明
‘자연’의 상대적 개념	‘야만’의 상대적 개념
성과로 표현되지 않음	성과로 표현됨

7) 宋斌(2009:315)은 또 양자의 상호 연계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명은 문화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생기는 필연적 산물로, 특정 민족이 특정한 지역에서 생활할 경우 반드시 일정한 형식의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문화와 문명은 상호 계승적인 것으로 다양한 문화는 고도의 문명을 발생시키고 문화의 양적 축적을 통해 문명의 질적 변화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음	가치판단을 포함함 (포퓰, 우열, 고저 등)
다원적 (민족, 지역, 시대 등)	일원적
공시적·정태적 구조	통시적·동태적 발달과정

3. ‘文明’과 ‘언어문명(言語文明)’

이와 같이 ‘文化’와 상대되는 개념이자 사회 진화론적 각도에서의 ‘文明’은 중국에서 ‘언어’라는 정신 영역에 투사되어 ‘언어’를 진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른바 ‘언어문명’이며 그 과정이 ‘언어문명화’이다. ‘언어문명’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언어적 영역에서의 문명이다. 이는 ‘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 ‘생태문명’ 등과 같이 일정한 범주 내에서의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언어문명을 정신문명의 하위에 넣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언어 영역에서의 문명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앞에서 정리한 문화와 문명의 차이는 언어 영역에 그대로 투사될 수 있다. 陳汝東(1996)은 언어문명을 “자연과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언어생활의 선진적 성과 및 진보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영역만을 뿐 위에서 정리한 문명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를 일원적인 동태적 발전과정을 지니며 ‘야만’에 상대되는 진보의 상태를 지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야만’에 상대될 경우 언어는 또 가치판단을 지니게 된다. 중국에서 ‘언어문명’건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정신문명이 강조되기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이다. 그 시작은 1981년 9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關於開展文明禮貌活動的倡議》이다. 여기에는 ‘五講四美’이라 하여 ‘講文明’, ‘講禮貌’, ‘講衛生’, ‘講秩序’, ‘講道德’과 ‘心靈美’, ‘語言美’, ‘行爲美’, ‘環境美’ 9가지의 캠페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語言美’는 ‘부드럽고 고상하며 겸손한 언어의 표현’을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언어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 향후 언어문명을 건설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⁸⁾ 그러면 언어에 있어 ‘야만’한 상태는 무엇일까? 언어에 있어 ‘야만’한 상태는 달리 말하면 ‘非’문명적인 언어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非’문명적인 예들을 귀납해 보자.

姜德軍(2002:89)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언어생활 중에 나타나고 있는 비문명적 현상으로 ‘언어문자의 비규범 현상’, ‘서양 숭배 심리에서 출현한 서양식 네이밍’, ‘배금(拜金)심리에서 출현한 봉건적 어휘의 범람’, ‘도덕관의 결핍에서 나온 언어의 저속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례는 들고 있지 않다. 鐘應春·彭小球(2007)에서는 ‘非’문명적 언어 현상으로 ‘언어의 저속화’와 ‘언어의 비규범적 사용’을 들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언어의 저속화’에는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 의사소통자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거칠고 불손하고 무시하는 언어나 인터넷이나 일부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원색적 표현이나 저질 표현, 시장 만능의 사회적 풍토에 편승한 저속한 광고언어 등이 포함된다. ‘언어의 비규범적 사용’에는 번체자(繁體字)와 이체자(異體字)의 남용, 착별자(錯別字) 사용 등 문자의 비규범적 사용과 무문별한 서양식 이름, 음역어의 남발 등이 포함되며 또 과도한 해음(諧音) 현상⁹⁾이 포함된다. 滕麗(2011)은 ‘非’문명적 언어 현상으로 언어의 저속화 외에 ‘언어의 폭력화’와 ‘언어적 차별성’을 들고 있다. 언어폭력은 주로 조롱, 모욕, 비방, 멸시, 헐박 등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 중계에서 스포츠를 전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폭력적 언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였다. 언어적 차별성은 계층 비하적 표현과 성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다. 中國人民大學 顧海兵 교수의 경우, 조화로운 문명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조화(和諧)’로 워야 함을 강조하면서 ‘矮子’, ‘胖子’, ‘農民工’ 등의 어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각 ‘欠高者(高障者)’, ‘身体寬大者(体寬者)’, ‘新工人’으로 바꿔 사

8) 李樹新·道兒基 「改革開放與語言文明建設」, 『前沿』 第9期, 2002, 113-114쪽 참조.

9) 鐘應春·彭小球(2007:86)에서는 과도한 해음 현상의 예로 ‘飲以爲榮’(음료광고), ‘无鞋可及’(신발광고), ‘天嘗地酒’(주류광고)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각각 ‘引以爲榮’ ‘无懈可擊’ ‘天長地久’를 해음한 것이다. 이러한 해음 현상은 상품 구매력을 높여려는 마케팅 전술의 일환으로 상품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까지 비규범적 언어 사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⁰⁾ 이상을 통해 ‘非’문명적 언어 현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비규범적 언어 혹은 문자의 사용이다.
- 둘째, 욕이나 성 관련 비속어, 저속어이다.
- 셋째, 외래어의 남용이다.
- 넷째, 계층 비하적 표현이다.
- 다섯째, 성차별적 표현이다.
- 여섯째, 폭력적 언어표현이다.

이러한 ‘非’문명적 언어는 가치 판단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이며 후진적이다. 그러므로 개선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언어문명은 많은 경우 ‘化’와 결합하여 ‘언어문화’라는 변화의 각도에서 서술된다. 그러면 위에 열거된 ‘非’문명적 언어를 ‘언어문명’이 아닌 ‘언어문화’의 각도에서 보면 어떠한가? 2장에서 정의한 바대로 문화는 상대적이며 다원적이고 非가치판단적이다. 이에 근거할 때 위의 열거된 언어 현상들은 ‘非’문명적인 개선의 대상이지만 언어문화의 각도에서 볼 때는 여전히 중국어에 존재하는 언어문화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문명’의 개념은 ‘언어’라는 영역에서도 ‘야만’에 상대되는 개념이자 진보, 가치판단, 일원성, 동태성이라는 사회진화론적 성격으로 그대로 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文明語言’의 개념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언어의 문명화는 6가지로 귀납된 ‘낙후되고

10) 中國文明網, <消除歧視語言彰顯社會文明和進步>(2012.12.27) 참조.

야만적인’ 언어를 선진적이고 진보한 언어로 개선하는 것이다. ‘文明語言’은 글자 그대로 보면 ‘문명화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문명화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추구될 수 있다. 하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대상은 ‘非’문명적 언어일 것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의 대상은 ‘문명화된 언어’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文明語言’은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언어의 문명화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소인 셈이다. 그러면 ‘文明語言’은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적 현상을 일컫는 것일까? 현재 국내에는 ‘文明語言’에 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고 따라서 ‘文明語言’의 한국어 대역어도 제시된 바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중국에서 ‘文明語言’가 어떻게 영어 대역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文明語言’의 실례 및 특징들의 분석을 통해 ‘文明語言’의 개념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우선 영어 대역어의 상황을 살펴보자. 대역어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학술적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논문의 영문제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중국의 학술전문 데이터베이스인 ‘万方數據’에서 ‘文明語言’으로 검색했을 때 총 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 영문 제목이나 초록이 있는 논문은 3편이었다.¹¹⁾ 이 세 편의 중문 제목과 영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 段曉平(2005), 「中學文明語言素質現狀調查分析」
‘An Investigation of the Use of Civilized Language in Middle Schools’
- 王剛(2008), 「賽場文明語言環境研究」
‘Study on Civilized Language Environment Gymkhana’
- 趙曉燕(2001), 「文明語言在高校圖書館的作用」
‘Action of Civilized Language in College Libraries’

위 세 편의 논문은 모두 ‘文明語言’을 ‘Civilized Language’로 대역하였는데, 이는 ‘문명’을 뜻하는 ‘civilization’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

11) ‘文明語’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은 없었다.

듯이 ‘civilization’이라는 용어는 본래 근대 시기에 일본에서 ‘文明’이란 한자로 옮겨졌고 ‘文明’이라는 한자어가 이후에 다시 중국에 그대로 차용된 것이다. 여기서의 ‘문명’은 ‘야만’, ‘반개(半開)’, ‘문명’이라는 사회진화론 단계의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 함의가 대단히 포괄적이며 특히 ‘언어’와 조합될 경우 구체적인 지시물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영어에서 ‘civilized language’는 주로 ‘보다 진화된 언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언어 간 비교에 있어 ‘어느 언어가 보다 진화된 언어(문명 언어)인가?’ 등의 논의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언어는 B라는 언어와 비교할 때 ‘less civilized language’라고 말할 수 있다. 구어에서는 어느 한 언어나 문화를 무시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In fact, Chinese language is a non-civilized language, as~” 또는 “English is more civilized than French.” 등의 경우에서 사용된다.¹²⁾

위 세 편의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지는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완곡하고 예의 있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의 ‘文明語言’은 영어의 ‘civilized language’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英語沙龍:實戰英漢版』(2012)에는 「關於“文明”的英文譯法“Civilized” or “Polite”?」라는 제하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文明’의 의미 지향점이 ‘사회’일 경우에는 ‘civilized’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며 의미 지향점이 ‘공민(公民)’일 경우에는 ‘polite’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文明社會’, ‘文明城市’ 등과 같이 의미 지향점이 ‘사회’나 ‘도시’일 경우에는 ‘civilized’로, ‘文明市民’, ‘文明用餐’ 등과 같이 의미 지향점이 ‘공민’일 경우에는 ‘polite’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의 의미 지향점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文明語言’은 각 개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문명’은 ‘공민’을 지향한다. 이 경우 ‘文明語言’은 ‘polite language’로 번역될 수 있다. 이는 우리말로 ‘공손어’, ‘예절어’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civilized

12) 영어에서 ‘civilized language’의 의미와 사용 예문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김도훈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language’에 비해 보다 언어적 실체가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이고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문명’의 속성이 언어적으로 ‘공손어’, ‘예절어’를 가리킨다면 이 경우 ‘야만’에 해당하는 것은 ‘impolite language’ 즉 ‘무례하고 거친 언어’가 된다. 그러면 ‘文明語言’과 ‘polite language’를 일대일의 대응체로 볼 수 있을까? ‘中國知識網翻譯助手(dict.cnki.net)’에서 ‘polite language’로 검색하면 논문명을 포함한 22개의 용례가 검색되는데 그 중 18개는 중문 원어가 ‘禮貌語言’이고 4개는 ‘禮貌用語’이다. 그 중 논문 몇 편의 영문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梁顯雁(2006), 「禮貌語言的語用探究」
‘Polite Language of Inquiry in Pragmatics’
- 王巍(2006), 「英漢禮貌語言的文化特性」
‘Cultural Characteristic of Polite Language in English and Chinese’
- 成曉瑜(2001), 「圖書館的禮貌用語」
‘Polite Language in Library’
- 姚文振(2001), 「英漢文化中禮貌用語比較」
‘On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English in the Use of Polite Language’

중문 원어가 ‘文明語言’인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볼 때 학술적 측면에서 ‘polite language’는 ‘禮貌語言’ 혹은 ‘禮貌用語’의 영문 대역어로 쓰이고 있는 반면 ‘文明語言’의 대역어로는 쓰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禮貌語言’과 ‘文明語言’이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文明語言’과 영문 대역어의 관계를 통해 ‘文明語言’의 개념을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civilized language’나 ‘polite language’ 모두 ‘文明語言’의 개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文明語言’과 관련된 기존 연구 및 관련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례 및 특징을 살펴보자.

중국에는 소위 ‘文明禮貌十字用語’라는 것이 있는데, “請”, “您好”, “謝謝”, “對不起”, “再見”의 10글자를 말한다. ‘文明禮貌十字用語’는 간단하고 쉬운 언어 표현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호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任仲平(1998)이 이러한 기본적인 말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고, 또 ‘文明禮貌十字用語’ 사용하기 운동 등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들이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잘 들리지 않는’ 말임을 알 수 있다. 趙曉燕(2001:107-108)은 대학 도서관 직원이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文明語’ 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你怎么亂放!”, “把書放回原位!”, “都像你着樣, 書庫不亂套了!” 등의 표현 보다는 “麻煩您把書放回原位。”, “請把書放整齊。” 등의 ‘文明語言’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다. 또 林白群(2011)은 어린이들의 ‘文明語言’ 사용 습관을 어떻게 배양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고, 郭銳(2011)는 교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文明語言’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데, 이들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文明語言’은 대체로 ‘예절어’, ‘공손어’ 등에 가깝다. 또 북경시에서는 2013년부터 엄숙하고 딱딱하여 ‘설교적’이었던 이전의 ‘캠페인어(提示語)’를 친근하게 바꾼 ‘新版文明提示語’를 보급하기로 하였는데, ‘新版文明提示語’에는 유행어나 인터넷 언어, 노래 가사, 드라마 대사 등을 활용한 친근한 표현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微笑不費分文, 溫暖常留心間(상점)”, “請您欣賞我的笑臉, 不要折斷我的細腰(공원)”, “請不要讓我無故流淚(물 절약)” 등이 있다.¹³⁾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또한 ‘예의 있고 공손한 언어’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文明語言’은 ‘공손어’, ‘예절어’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徐根松(2005:119)은 ‘文明化語言’은 ‘正確性’, ‘純潔性’과 더불어 ‘健康性’, ‘適合性’, ‘說服性’, ‘生動性’, ‘伴隨性’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공손어’, ‘예절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正確性’이란 표준어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병음규칙의 사용과 간체자의 사용이 포함되

13) 「新潮語言融入新版文明提示語」, 『北京日報』, 2012.11.03, 참조

며, ‘純潔性’은 표준어에 포함되지 않는 ‘잡스러운(雜)’ 언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속어·은어 등과 불필요한 고어 사용, 외래어 남용, 저속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외에 ‘文明語’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健康性’, ‘適合性’, ‘說服性’, ‘生動性’, ‘伴隨性’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健康性’은 사회도덕규범에 위배되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適合性’은 언어가 시간, 장소, 상황, 대상 등에 적합해야 함을 말한다. ‘說服性’은 언어가 상대방의 신뢰 속에 상대방의 정서나 생각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며, ‘生動性’은 생동적인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주지와 흥미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伴隨性’은 유성(有聲)언어에 수반되는 부(副)언어를 말하는 데,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 미소, 친절한 표정과 동작 등이 해당된다. 徐根松(2005:119)의 이러한 분류는 ‘文明語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각 특징에 해당하는 실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健康性’, ‘說服性’, ‘生動性’ 등은 추상적이어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伴隨性’은 ‘文明語言’의 범위를 과도하게 부언어(副言語)에까지 확장시켰다. 또 ‘純潔性’은 주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文明語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文明語言’의 실례와 특징들을 다시 종합하면 ‘文明語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귀납할 수 있다. 첫째는 ‘정확성’이다. 이는 규범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문별한 외래어를 남용하지 않으며 비표준적인 은어·욕 등의 사용을 지양하는 반면 표준어의 사용, 규정된 간체자의 사용, 정확한 병음규칙의 사용 등이다. 둘째는 ‘적합성’이다. 여기서 적합성은 불필요한 고어를 남발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적 적합성’, 연령의 많고 적음·지위의 높고 낮음·성별의 차이 등에 따라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적 적합성’, 서비스업·학교·공공장소 등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장소 및 상황적 적합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예의성’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공손어, 예절어 등이 포함된다. ‘적합성’과 ‘예의성’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 적합하게 표현하는 예절어'나 '어떤 장소에 알맞게 사용하는 공손어' 등이 있겠다.¹⁴⁾

이러한 '文明語言'의 특징에 근거해 앞에서 살펴본 영문 대역어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우선 'polite'는 '文明語'의 한 특징인 '예의성'을 잘 드러내준다. 하지만 '정확성'과 '적절성'이라는 특징까지 담기는 어렵다. 본고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영어 단어로 'right'를 제안한다. 'right'는 'right and wrong'처럼 옳고 그름이라는 '정확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Learn to say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세요.)'처럼 '적합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文明語言'은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영어 표현으로는 적절하게 그 함의를 전달하기 어렵다. '文明語言'의 지니는 '정확성'과 '적절성'은 'right'가 담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의성'은 'polite'로 표현하면 될 것이므로 양자를 결합하면 'right and polite language'라고 대역한다면 'civilized language'가 부적절성과 'polite language'가 지니고 있는 개념적 제약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면 '文明語言'은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물론 일대일의 완전한 대역은 어렵겠지만 위에서 제안한 기준들에 근거할 때, 이는 대체로 '바르고 고운 말'에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에 '바른 말 고운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바른 말'은 '정확하고 적합한 말', '고운 말'은 '사용상에 있어 공손하고 예의 있는 말'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함의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대역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熊經浴(2012)에서는 '공무원의 예절용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예절어', '병원 종사자의 공손어', '서비스업에서의 공손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의 적합성'과 '장소 및 상황적 적합성'이 예의성이 결합된 경우이다.

5. 나오기

본고는 ‘文明語言’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 사회 발전의 지향점이 되고 있는 ‘文明’이라는 키워드가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文明’은 ‘文化’와는 달리 ‘일원적’, ‘진보적’, ‘가치 판단적’, ‘동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근대 시기에 처음 중국에 ‘文明’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 투사되어 왔다. ‘文明’은 언어 영역에 투사되어 ‘언어문명’으로 조합된 후, 언중들이 지향해야 할 언어생활의 방향이 되었다. ‘文明語言’은 언어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文明語言’의 특징을 ‘정확성’, ‘적절성’, ‘예의성’의 세 가지로 귀납하였다. 즉 규범성을 전제로 사용적 측면에서 적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의사소통 쌍방 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인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각급 학교나 관공서, 기업 등에서 ‘文明語言’ 사용 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재 중국인들의 언어생활이 그만큼 ‘오염’ 내지 ‘파괴’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학자들은 주로 중국 사회의 시장 경제화에서 찾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로 나타나는 도덕관이나 질서관 등 정신적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주 강조하는 ‘和諧社會’나 ‘中國特色社會主義’라는 말들은 바로 파괴된 전통적 윤리관을 회복하여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결합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늘 ‘계몽’ 운동이 펼쳐지는 국가이다. ‘文明語言’ 사용의 계몽 운동이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언어 사용 정책과의 비교 분석도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민정 외, 『문명 안으로』, 한길사, 2011
- 김홍수, 「중국이 뒤흔든다-“문명형 국가”의 굴기」, 『CHINA연구』 제11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
- 박이문, 「문명사적 기로의 세기」, 『전국역사학대회』, 한국서양사학회, 1999
- 서광덕, 「20세기 초 중국의 ‘문명/화’담론과 ‘언어’론에 대한 검토」,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7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0
- 송인재, 「‘문명’의 발견과 해석, 그리고 중국의 비전」, 『유교사상문화연구』 제48집, 한국유교학회, 2012
- 유영하, 『이미지로 읽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명출판, 2012
- 전홍석, 「동서 ‘문화·문명’의 개념과 그 전개」, 『동양철학연구』 제63집, 동양철학연구회, 2010
- 戴銀鳳, 「Civilization与“文明”」,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02
- 郭銳, 「禮貌原則下的教師禮貌用語對學生的影響」, 『山西廣播電視大學學報』 第1期, 2011
- 陳汝東, 「論語言文明」, 『語文建設』 第11期, 1996
- 侯精一, 「漢語规范化50年」, 『語文研究』 第3期, 2006
- 姜德軍, 「語言文明建設与精神文明建設」, 『前沿』 第11期, 2002
- 李樹新, 「論語言文明建設」,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第6期, 2002
- 李樹新·道儿基 「改革開放与語言文明建設」, 『前沿』 第9期, 2002
- 林白群, 「及早播下語言文明的种子」, 『東方青年教師』, 2011
- 劉佶鵬, 「我國社會主義文明觀的歷史演進」, 『理論探索』 第2期, 2010
- 劉進才, 「語言共同体的建构与方言、土語的規訓」, 『中國文學研究』 第1期, 2011
- 任仲平, 「論講禮貌」, 『人民日報』(1998.1.25), 1998
- 滕麗, 「電視媒体語言中違背語言文明規范現象分析」, 『怀化學院學報』 第30卷 第4期, 2011
- 王虹, 「中國傳統道德与現代語言文明」, 『沈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05

- 衛劉華, 「從鄧小平、江澤民到胡錦濤:社會主義文明觀的新發現」, 『攀登』 第25卷 145期, 2006
- 熊經浴, 『現代文明禮貌用語手冊』, 金盾出版社, 2012
- 薛冰超, 「淺論技校語文教學中的文明禮貌用語教育」, 『中國校外教育』 第2期, 2012
- 徐根松, 「語言建設的兩個層次」, 『語言文字』(基礎教育版), 2005
- 徐鴻武, 「論文明與現代文明結構」, 『中國特色社會主義研究』, 2004
- 揚清, 「馬克思主義精神文明觀與語言文明建設」,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第23卷 第5期, 2002
- 張亮, 「淺談文明語言的藝術魅力」, 『科技信息』 第20期, 2011
- 趙曉燕, 「文明語言在高校圖書館的作用」, 『圖書館論壇』, 2001
- 鐘應春·彭小球 「論“和諧社會”中的語言文明建設」, 『湖南城市學院學報』 第28卷 第3期, 2007
- 「新潮語言融入新版文明提示語」, 『北京日報』, 2012.11.03
- 「檢察機關文明用語規則和文明用語基本規範」, 『檢察日報』, 2010.6.30
- 「關於“文明”的英文譯法“Civilized”or“Polite”?’ 『英語沙龍:實戰英漢版』 第4期, 2012
-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
- <http://www.wenming.cn/> 中國文明網
- <http://dict.cnki.net/> 中國知識網翻譯助手

<Abstract>

Consideration given to 'Wenming Yuyan'

Jung, Yunchul

This paper was launched by the purpose of studying in depth on the concept of 'Wenming Yuyan'. To this end, I have given a lot of thought to what implications the keyword of 'civilization'(Wenming), which becomes a destination point for the current social development of China, has. It was found out that unlike 'culture', 'civilization' has a dynamic characteristic and has been projected into various fields since it was initially introduced to China in modern times. After 'civilization' permeated a linguistic area, resulting in 'linguistic civilization', it became a direction the public has to pursue in their language life. 'Wenming Yuyan' is one of the key elements that constitute language civilization. This paper was developed inductively into three components, namely accuracy, appropriacy and courtesy. In other words, based on accuracy, it features appropriacy in terms of usage and can lead both communication parties to a desirable relationship.

Presently, various levels of schools, public offices, businesses etc. in China are conducting a campaign to promote 'Wenming Yuyan', which means Chinese people's language life is now considerably polluted or destroyed. Scholars mainly attribute this problem to market economization in China society. Of course, this phenomenon, far beyond the language sphere, can be witnessed in the mental area such as a view of morality or order that is represented by the language.

The slogans like 'The Reconciled Society'('和諧社會') or 'The Chinese Style Socialism'('中國特色社會主義') on which the current Chinese leaders frequently put emphasis are intended to restore the traditional ethics that are heavily damaged and combine it with the system of China's own unique socialism. An enlightenment movement is commonplace in China. It is needed to keep our interest in how the enlightenment drive for using 'Wenming Yuyuan' will affect the public's language life and also develop hereafter.

In addition, it can be worth comparing and analyzing Korea's policy on language use.

Key words : Chinese language, Wenming Yuyan, civilization, culture

투 고 일 : 2013. 05. 19. / 심 사 일 : 2013. 06. 01. ~ 2013. 06. 17. / 게재확정일 : 2013. 06. 23.